

“법당의 부처님은 불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제4강 도법 스님

11월 17일 광주 동구 KT 정보문화센터 대강당에서는 '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 중인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가 열렸다. 행사에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도법 스님이 <화엄경>과 인드라망 무늬 그리고 보현행원으로서의 생명평화운동'을 주제로 <화엄경>을 강의했다. 다음은 도법 스님의 법문을 정리한 것이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화엄경>에 관한 것입니다.

당나라 때 계셨던 청량 국사를 떠나서는 화엄사상과 철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문의 첫머리는 청량 국사가 <화엄경>을 찬탄하는 내용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청량 국사는 1200여 년 전 당나라 때 인물인데, 일곱 임금의 스승 역할을 했습니다.

스님은 <화엄경>을 “아침 해가 떠오르니 못별들이 빛을 잃고, 수미산 우뚝 솟으니 높은 봉우리들이 빛바래네”라고 극찬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밝아지면 별빛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화엄경>은 불교의 모든 경전 중에서 태양과 같은 경전이라는 표현입니다.

청량 스님 화엄경 극찬

왜 <화엄경>을 그렇게 극찬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에겐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내가 살고 싶은 생명 평화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물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화두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인생 제일의 화두인 이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일 먼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대승경전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오게 되면 ‘본래 부처’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선불교로 오게 되면 ‘본래 면목’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물론 여래장사상, 자성정정사상 등 다른 개념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했던 것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아독존, 본래부처, 본래면목’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래부처행 또는 유아독존행 또는 본래면목행으로 보현행원을 실천하면 그 즉시 생명평화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불교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화엄경>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인생 제일의 화두에 대한 설명을 가장 깊게, 가장 높게, 가장 풍부하게, 가장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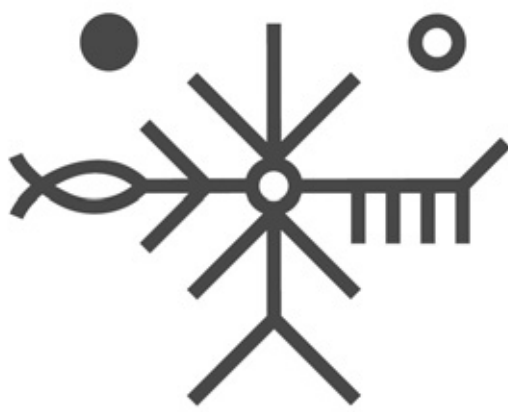
<화엄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중무진연기의 세계’와 ‘동체대비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연기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그냥 연기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중중무진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중중이라는 말은 겹겹이란 말이고, 무진이란 말은 무공무진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겹겹으로 무공무진하게 서로

관계 맺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중중무진연기법의 세계관과 동체대비행, 또는 인드라망 세계관과 동체대비행, <화엄경>은 이 두 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아독존 본래부처 본래면목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본래부처사상과 보현행원, 본래부처정신과 보현행원 이렇게 표현됩니다.

<화엄경>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화엄경>을 만났을 때 지레 겁먹던가, 아예 허황된 이야기라고 불신하던가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좀 들여다 보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것을 단순화 시켜서 누구나 쉽게 만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자기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서 <생명평화경>을 만들고 인드라망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이 생명평화무늬는 ‘화엄의 사상과 정신, 중중무진연기법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는 ‘중중무진연기법으로 태어난 지금 여기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저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저 그림 속에



인드라망 무늬

담겨있는 사상과 정신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살고 싶은 생명 평화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내 생명은 내 안에 있지 않다

보통 우리는 내 생명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인해 보면 그런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내 안에 있고, 내 생명은 내 안에 있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도법 스님이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에서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도법 스님은 <화엄경>이 인생 제일의 화두를 가장 깊고, 높고,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부처는 응답하고 영험 보인다 화엄경 요체는 본래부처 깨달아 보현행

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망상일 뿐입니다. 실상은 그렇게 분리돼 따로 따로 존재하는 생명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연기법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인간적이든, 자연적이든 분리 독립돼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도 분리 독립되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연기법의 사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없는 지금 내 생명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태양과 내 생명처럼 모든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의 시간, 공간, 정신, 물질, 내면, 외면, 유형, 무형, 인간, 자연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참여하고 관계 맺어서 지금 여기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유 들자면 온 우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그물로 이루어져 있다. 낱알 존재들은 그물의 그물코처럼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인드라망세계, 인드라망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중무진연기법의 사유방식으로 또는 인드라망 사유방식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나와 무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내 생명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 생명의 진면목, 내 생명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 나는 그물의 그물코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온 우주가 하나의 유기적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몸, 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우주는 한 몸, 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 생명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내 것이라는 기득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의지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연기무아’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존재의 실상을 긍정적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본래부처 이런 개념으로 표현 되어 지는 것이고, 부정적 표현 방식으로 하면 연기무아, 공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명의 진면목, 내 생명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확인해 보면 온 우주는 한 몸, 한 생명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온 우주가 동체임을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가 내 생명 아닌 것이 없으니 생명은 당연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 존재 하나 하나가 내 생명의 모체들이죠. 그들을 존중하는 것 배려하는 것 보호하는 것 고마워하는 것 이것을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를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고맷게 잘 모시고 섬기는 마음 씀을 동체대비라 표현합니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보현행원이라 표현합니다. <화엄경>은 언어로 표현하자면 중중무진연기법의 세계와 동체대비행 또는 인드라망 존재와 동체대비행 또는 본래부처의 정신과 보현행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실천해야 불교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기경전에 “출생으로서 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출생으로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본인의 행위에 의해 천인이 되고 바라문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내가 행위하는 대로 창조되어 지는 것입니다. “오직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연결시켜서 만들어보면 부처 행위가 있을 뿐 그 밖에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 즉, 행을 하지 않는 한 불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천 있어야 불교

어떤 것이 부처행인가? 초기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보현행원을 이야기합니다. “보현행을 하면 그게 곧 부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수행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부처되자 이런 가르침이 아니고, 본래 너는 부처이니 그것을 내가 제대로 써라, 바로 부처로 행동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삶은 자유로워진다, 평화로워진다, 행복해진다든 매우 단순 명쾌한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부처란 목적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활발하게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 쉬는 존재입니다. 부처는 매우 신비한 존재, 영험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의 행위를 하면 즉각 반응합니다. 바로 영험이 나타납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매우 영험한 존재, 팔팔 살아있는 존재, 매우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고 일어나는가? 간단합니다. 부르면 즉각 대답합니다. 여러분 법당에서 부처님 열심히 부르죠. 대답하던가요? 대답 않던가요?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부처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부처는 즉각 대답합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또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부르면 즉각 반응하지요. 부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영험이겠습니까? 바로 바로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습니다. 내가 인사하면 상대도 인사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영험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바로 대답하는 부처님을 상대로 해서 기도도 하고 염불, 참선, 수행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납니다. 좋은 날입니다.

이게 자비행이고, 보현행이고, 이것이 본래 부처행인 것입니다. 불교를 우리는 이렇게 알고,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 본인에게 좋고 두 번째 나와 관계 맺은 사람도 좋고 세 번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좋아서 이렇게 마음을 내게 됩니다. 불교가 바로 바로 영험이 나타나는데 즉각 즉각 효험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는데 저는 불교를 이렇게 해야만 하는 당사자도 좋고, 불교도 소위 잘 발전해가고 또 이 세상에 불교가 반드시 있어야 할 종교로 모든 대중들로부터 공감 받고 지지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불교를 보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을 하십시오.

인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사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스킨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돌면서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원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구 후 닦아줍니다.
 -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중구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